



#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박찬일/편집인 : 서창욱/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www.kamje.or.kr](http://www.kamje.or.kr)



###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협회의 단체회원은 지난 6월 병원감염관리, 대한나학 회지, 의학물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가 신규로 가입하여 2006년 7월 현재 158종(의학회, 의협 및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 120, 의과대학 학술지 12, 기타 학회 학술지 26)이며 개인회원은 29명입니다.

또한 특별회원은 올 7월 NHN(주)가 새로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광문출판사, 아카데미, 엠투커뮤니티, 의학문화사, 중앙문화사, 진기획, 최신의학사, Proquest 한국지사 등 총 9개 단체가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 사무국(Tel: 798-3807, Fax: 794-3148)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이중게재 논문 철회(Retraction)에 관한 건

본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3일자 회원학술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논문의 중복출판/이중게재의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 이 사안을 국내 의학학술지의 중요한 현안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와 임원회의를 거쳐 의편협 내에 '출

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논문의 이중게재 여부 판단의 근거제시, 자문 등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KoreaMed에서의 이중게재 논문 처리는 아래와 같이 PubMed 방식을 따를 예정이니 회원학술지 편집인께서는 관련 절차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KoreaMed에서의 이중게재 논문 처리 절차

- ① 먼저 해당 학술지에서 논문 게재 철회 (Retraction) 사실을 논문 게재 형태로 학술지에 게재(그림 1).
- ② KoreaMed에 철회가 발표된 논문이 입력됨으로써 철회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이미 등재되었던 논문에는 'Retraction of Publication' field를 추가해서 두 개의 논문을 Link 개념으로 처리(그림 2, 3).
- ※ 해당 학술지의 논문 철회(Retraction) 발표 없이 일반적으로 KoreaMed에서 논문을 삭제하는 것은 KoreaMed DB 품질 관리나 국제적인 표준 처리 절차에 맞지 않아 PubMed 방식을 준용하기로 함.



(그림 1) 논문 게재 철회 (Retraction) 사실을 논문 게재 형태로 실은 학술지



(그림 2) 'Retraction of Publication'을 통해 원저로 연결



(그림 3) 'Retracted Publication'을 통해 이중 게재된 논문으로 연결

※ 위 그림(1, 2, 3)은 <http://www.kamje.or.kr> 게시판 153번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출판윤리위원회 구성과 결의 사항

본 협의회에서는 중복출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난 6월 14일 임원회의를 거쳐 출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출판윤리위원회는 7월 7일 첫 회의를 통해 이중게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지침을 정리하는 <이중게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금년 가을에 개최할 의편협 교육위원회 워크샵에 "이중게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학회에 이중게재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할 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KoMCI 2005 발간

본 협회회의 의학학술지 평가를 통해 KoreaMed에 등재된 113종 학술지(2005년 기준)의 국내 의학학술지 상호간의 인용형태를 분석한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KoMCI 2005]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05년도 국내 의학학술지의 게재논문수, 한국문학 인용 비율, 자체학술지 인용 비율 Impact Factor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oMCI 2000에서부터 여섯 번째로 발간된 이 보고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고 KoreaMed : 우리 학술지 Medline 등재의 꿈 세계보건기구에서 꽃을 피우다

서정욱(서울의대 의학도서관장, 의편협 개인회원)



### [1] 우리 학술지가 Medline에 등재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주요 보건의학 분야 학술지는 200여 종으로 추산되며 그 중 115종이 KoreaMed에 등재되어 있다. 그 중 13개 학술지는 Medline에도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학술 정보를 대표하는 수준급 학술지를 100종 정도로 잡는다면 이들 학술지가 Medline에 등재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할까?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Medline에 등재된 적이 있는 학술지는 총 32,972종이며, 현재 등재하고 있는 학술지는 4,800종이다. 1966년 이후 발행된 학술지 논문 1,200만편이 Medline에 수록되어 있고 1965년 이전의 자료 200만편은 OldMedline에서 별도로 서비스 한다. 한편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100종의 의학학술지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학술지가 Medline에 등재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Medline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 처리 용량은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금도 이미 과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상 확장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기술적인 평가이다.

### [2] 학술지 편집인들의 생각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교강선생님이나 판사 같은 직책이다.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할 일은 태산이고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으며, 작은 실수도 금방 드러나고 그 상처는 지울 수가 없다. 돈도 없고 도움 받을 사람도 없어 개인의 희생으로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선비이다. 자진해서 맡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강요에 가까운 추대로 임명되지만 임명한 학회 대표조차 도와주는 데 인색하다. 우리나라 학술지 발전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150여 편집위원장 그리고 3,000여 편집위원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일관된 대답을 듣는다. "우리 학술지가 Medline에 등재되었으면... SCI 학술지가 될 수 있다면..." 국제적인 논문 색인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으면 논문이 제출되지도 않고, 인쇄된 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학술지 편집인의 희망을 Medline에 거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 [3] 학술, 지식, 정보를 나누는 시대

책이 귀하던 시절에는 비밀스러운 처방을 메모한 필사본을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학술적 업적이고 영광이었다. 몇몇 회원들끼리 나눠보던 동인잡지 형식의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이 자랑이었고, 논문을 대신 출판해주는 상업 학술지가 영입이 되었다.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학술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분과학회가 분화하면서 새로운 조직이 생길 때마다 새 학술지가 탄생하는 학술지법람의 시대가 왔다.

학술지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 필요 이상으로 학술지가 장간되고 기존 학술지도 부실화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학술지와 발표 논문이 증가하는 것은 학문이 발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출판하고 싶은 정보와 읽고 싶은 정보, 읽고 싶은 지식의 양은 팽창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의 효율적인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문헌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출판과 인쇄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논문이 인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며, 많이 읽히고 많이 인용되는 학술지에 실려야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다. 학술 논문과 학술지의 무한 경쟁시대라고 할 수 있다.

### [4] 우리 학술지가 국제사회에 소개된다면?

Medline 등재 학술지 4,800편의 발행 국가는 70개국이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선진 20개국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13개 학술지를 등재시킨 것은 대단한 성과이다. 43개국은 10개 이내이며 UN 회원국 중 한 개의 학술지도 없는 나라가 121개국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 중심의 Medline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의학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부 첨단 연구자를 위한 귀족 출판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발족하고, 이어서 학술지평가 후 선정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KoreaMed 라는 색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바라본 KoreaMed 와 KoMCI는 국제적인 모범사례이다. KoreaMed 이용자의 2/3가 외국인이라는 것은 그 가치와 필요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한국의 KoreaMed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두 가지이다. Medline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의 색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191개 UN 회원국 모두가 국가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보다는 적절한 지역 규모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Gateway에서와 같이 통합 검색한다면 진정한 데이터베이스 통합 검색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Gateway: <http://gateway.nlm.nih.gov/gw/Command>)

### [5]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Health Library 와 Global Index Medicus

(GHL:<http://www.who.int/ghl>) (GIM:<http://www.who.int/ghl/medicus>)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 목적에 맞는 특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면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Global Health Library(GHL)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Access to reliable health information for those who need it.) 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개념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GHL의 3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 환자, 보건의료전문가, 정부의 의료정책 입안자 등 각 정보 소비자 계층에게 차별화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2) 의료기관, 회사, 사회, 국가 등의 다양한 정보 생산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3)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정보 환경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출판 방식으로 보급한다.

GHL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Global Index Medicus(GIM)이다. 세계 6개 권역별로 지역적 특성을 갖춘 Index Medicus를 만드는 것이다. Medline이 선진국 중심의 문헌 정보시스템이라면 GIM은 개발도상국의 문헌을 색인하여 정보의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GIM은 WHO 6개 권역별로 Index Medicus를 구축하여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기 학술지 문헌 뿐 아니라 비정기 간행물까지 색인함으로써 국가별 특성이 수용된 자료가 검색되도록 하고 있다. WHO의 6개 권역 중 4개는 이미 권역별 Index Medicus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 사람이 주요 저자인 Medline 등재 학술지 논문을 색인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미주 지역 기구에서는 Medline 자료에 지역 학술지 자료를 통합하여 검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지중해 지역 국가들도 지역 학술지 편집인협의회를 활성화하면서 학술지 색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미 국가 학술지 색인을 하고 있는 인도를 제외한 나라의 색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 동부지중해지역(East Mediterranean Region: <http://www.emro.who.int/his/vhsl>),
- 아프리카지역(African Region: <http://afrolib.afro.who.int>)
- 판아메리카지역(Pan American Region: <http://www.bireme.br/bvs/ihome.htm>)
- 동남아시아지역 (South East Asian Region: <http://library.searo.who.int>)

유럽지역(Regional Office for Europe)과 한국이 속한 서태평양지역(Western Pacific Region)은 구축 준비상태이다.

### [6] WHO 서태평양지역기구의 WPRIM(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

WHO 서태평양지역기구는 다른 지역기구보다 늦게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5년 5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각 국가지정 의학도서관(focal point library) 대표자 회의를 열고 WHO 본부, 동남아시아지역기구, 서태평양지역기구가 함께 모여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월에는 서정욱, 조수현 허선, 김수영 이춘실 교수가 마닐라 WHO 서태평양지역기구를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하였다. 2006년 3월에는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자문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준비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서태평양지역기구의 전통의 학 분야 지역 책임자인 최승훈 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회의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학술지 단위로 문헌 책임을 하고 학술지 선정 기준은 상호심사가 이루어지는 잠지로 하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정한다.
- 학술지 논문을 책임하는 Index Medicus 뿐 아니라 학술지 평가 사업을 병행하여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의 학술지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Regional Index Medicus에 우선적으로 올려서 Index Medicus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 한국의 KoreaMed와 KoMCI 프로그램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로부터 제공받아 WPRIM을 구축하고 컴퓨터서버는 마닐라 서태평양지역기구의 전산실 장비를 이용한다.
- 서태평양지역기구와 필리핀정부에서 각 1명을 2006년 6월 한국에 파견하여 KoreaMed 및 KoMCI 운영 기술을 전수받는다.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WHO 서태평양지역은 한국, 일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나라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리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이 그리고 서태평양의 작은 나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볼 때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의 자료를 먼저 통합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Regional Index Medicus를 조기에 출범시킬 수가 있다. 더구나 한국의 KoreaMed가 이 지역 Index Medicus의 토대가 된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 [7] WPRIM(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에 대한 전망

WHO 본부 및 서태평양지역기구 관계자 그리고 WHO 회의에 참석한 일본, 중국, 필리핀 대표들은 KoreaMed와 KoMCI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WPRIM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력에서는 각 국가의 보편적인 협조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동료 회원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중국과 일본 대표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자국내 협의에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

다음 회의는 2006년 11월에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WHO가 주최하고 각 국가 문헌정보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중국 의학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베이징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Asian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APAME)를 결성할 예정이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다른 회원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WHO 서태평양지역기구 차원의 사업 자금 마련도 과제이다. KoreaMed의 운영이 대한의학회의 지원과 회원들의 회비 및 무료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기도 하지만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규모 있는 실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적절한 시점에 투입해야 한다. KoreaMed만을 운영하는데도 현재의 재정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 WHO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 자금뿐 아니라 Gates foundation (빌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한국 단체의 출연금이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WHO에 출연금을 내고 그 자금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WHO 사업에 투입되도록 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국제기구 사업방식임을 생각하면 재원 마련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WPRIM은 2007년 1월에 공식 출범한다. 출범 시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과 그 외 일부 국가가 추가되어 약 100개 학술지가 참여하는 모습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까지 한국의 100개, 일본의 1,000개, 중국의 1,500개 등 3,000개 학술지가 책임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현재 발행되는 학술지 전체의 약 1/2 정도에 해당하는 학술지 책임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나라를 돕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WPRIM 사업을 주도하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아시아태평양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끝**



## WPRIM 실무자 교육

지난 2006년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간 WPRIM(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 필리핀 실무자 2명(Mark Bendo, Wilfred Manuel B. Villarruz) 이 본 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WPRIM 관련 실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1) KoreaMed와 KoMCI Web Xml 파일 작성

법 2) KoreaMed와 KoMCI Web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작성법 3) Xml DTD 작성법, 4) Xml Data 업로드 방법 5) 의학학술지 평가방법 6) MeSH의 이해 등으로 2주간 교육을 통해 필리핀의 의학학술지 10종을 WPRIM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SCI 학술지의 JCR 2005 인용지수

SCI에 등재된 KoreaMed 학술지 4종의 JCR 2005 인용지수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학술지약어명(기관)	2005 Total Cites	Impact Factor	Immediacy Index	2005 Articles	Cited Half-life
EXP MOL MED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749	2.078	0.250	76	3.3
J KOREAN MED SCI (대한의학회)	929	0.650	0.053	206	4.4
KOREAN J RADIOL (대한영상의학회)	259	1.468	0.444	27	3.5
YONSEI MED J (연세대학교의과대학)	829	0.628	0.030	135	4.6



## 제 20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실시

2006년 6월 27일(화)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회의실에서 제 20차 의학학술지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평가결과(농촌의학·지역보건 2.36점, 대한골관절증양학회지 2.48점,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2.99점, 대한외상학회지 2.79점, 대한치과교정학회지 2.87점, 대한치주과학회지 2.18점, 소

아·청소년정신의학 2.24점, 한국영양학회지 3.02점)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대한외상학회지, 대한치과교정학회지, 한국영양학회지 이상 4종이 평점 2.5 이상을 획득하여 KoreaMed(www.koreamed.org)와 KoMCI (www.komci.org)에 등재되었다. 아래는 세부평점현황

### 20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 평점

■시 간 : 2006년 6월 27일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의실

항목	세부항목	농촌의학·지역보건	대한골관절증양학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대한외상학회지	대한치과교정학회지	대한치주과학회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한국영양학회지
자 체 평 가	1-1	3	5	2	2	3	3	5	5
	1-2	4	4	4	4	4	4	4	4
	1-3	2	4	1	3	4	3	2	3
	1-4	5	5	5	5	3	3	1	1
	1-5	5	5	5	5	5	5	5	5
	1-6	2	5	4	2	5	5	5	4
	1-7	3	3	4	3	3	3	2	3
	1-8	5	3	5	1	3	5	1	3
	1-9	2	5	2	2	2	2	4	4
	1-10	2	3	2	2	3	2	2	4
	1-11	5	5	5	5	3	5	0	5
소계	38	47	39	34	38	40	31	41	
실 물 평 가	2-1	3	2.33	3	5	3	2.67	3	2.67
	2-2	2.5	1.67	4.67	4.5	3.33	2	2	4
	2-3	2.33	2	3.67	4.33	3.33	2.33	4	3
	2-4	4	2.67	4	4.67	4.17	3.33	5	3
	2-5	2.67	2	4.33	4.67	2.67	2	3	2.67
	2-6	0	1	3.67	4	4.67	1.67	2	3
	2-7	1	0.67	2.33	3.17	3.67	1	1	4.33
	2-8	1.17	1	5	0	0	0	0	0
	2-9	0.67	0.33	1.67	1	1.33	1.33	1.33	2.33
	2-10	2	2	4.17	2.5	3.33	1.33	2	2.67
	2-11	N/A	2.5	3.5	4	3	1	N/A	N/A
	2-12	N/A	2.67	4.83	4.33	4	1.67	3.33	3.67
	2-13	3.83	3.5	5	4.5	4.67	4	4.17	4.17
소계	23.17	24.34	49.83	46.67	41.17	24.33	30.83	35.5	
협 의 회 조 사 항 목	3-1	0	2	0	1	0	0	1	0
	3-2	5	1	1	2	1	1	2	4
	3-3	0	0	0	0	0	0	0	1
	3-4	0	0	0	0	0	0	0	0
	3-5	0	0	0	0	2	0	0	3
	3-6	0	0	0	0	4	0	0	3
	소계	5	3	1	3	7	1	3	11
평 점	2.36	2.48	2.99	2.79	2.87	2.18	2.24	3.02	
KoreaMed 등재	X	X	O	O	O	X	X	O	

(N/A : Not Available)